

요. 당신 어머니만큼이나 당신을 애지중지했던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될까? 당신이 없어서 두 분이 울고 계신 것을 보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? 잔인한 것! 날 얘기하는 게 아니야. 그렇지만 아침이 돼서,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는 당신을 보지 못할 때,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밤이 올 때, 우리가 태어날 때 심어졌다는 이 야자나무 두 그루, 우리 둘 사이의 우정을 그토록 오래도록 지켜봐준 이 두 나무를 볼 때, 나는 어떻게했어? 아! 새로운 운명에 닿는 바람에 너는 네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찾고, 내가 일궈놓은 재산 말고 다른 재산을 찾고 있으니, 네가 타고 가기로 한 그 배에 내가 같이 탈 수 있게 해줘. 폭풍이 몰아치면 내가 널 달래줄게,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. 네 머리를 내 가슴에 뉘이고, 네 심장을 내 심장으로 따뜻하게 해줄게. 네가 부귀영화를 찾아 떠날 프랑스로 가서, 나는 종처럼 너를 섬길 거야. 오로지 너 하나의 행복으로도 기쁜 나는 그 저택에서 시종드는 사람들과 흠모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널 보겠지, 그리고 너에게 가장 고귀한 희생을 바칠 수만 있다면, 너의 발밑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보다 더 풍요롭고 보다 더 고귀할 거야.”

폴은 흐느낌에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, 이윽고 우리는 폴에게 말하는 비르지니의 목소리가, 탄식으로 중간중간 잘려나가긴 했지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네

.....